

# 드레온/룩셈부르크/평공의 차이

다이나믹노동당원

흔히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어 위백, 꺼무위키, 좌파도서관에 쓰여있는 것도 있고), 미국 노동운동의 아버지로 알려진 대니얼 드레온(더리온)과 1919년 독일 혁명의 주역이자 깡주님인 로자 룩셈부르크,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동지인 카를 리프크네히트. 이 셋은 좌공, 즉 좌파공산주의자나 평의회주의자가 아님. 지금 쓰는 이 글에서는 드레온, 룩셈부르크와 평공의 차이점, 그리하여 그 둘이 좌파공산주의자 혹은 평의회주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할 것임.

첫번째 이유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견 차이임. 드레온주의는 널리 알려져있는 대로 마르크스주의적 생디칼리즘인데,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는 혁명을 추구했고, '전투적 산별노조'라는 개념 또한 드레온이 처음 고안해낸 개념임. 그렇기에 어쨌든 노동조합에 긍정적인일 수 밖에 없음.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 또한 노동조합을 배척하지 않았고, 그들이 혁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음. 하지만 판네크, 호르터 그리고 코르쉬 등으로 대표되는 평의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을 자본주의 세력으로 보았고 그들의 파업은 결국 자본가들과의 타협 밖에 이뤄내지 못할 것이며 혁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음. 그래서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노동자 평의회를 설립해서 그들이 혁명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두번째 이유는 입당전술에 대한 이견 차이임. 먼저 드레온 쪽은 관련 자료가 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의회주의 노선도 옹호한 것으로 보면 입당전술을 쓸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안톤 판네크, 헤르만 호르터 등 평의회주의자들과 나름 친했는데 이들이 기회주의적, 개량적으로 변한 네덜란드 사민당을 탈당하고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을 만들었을 때 "왜 동지는 탈당하지 않는가? 독일 사민당이 개량주의에 굴복한 것은 명백하다."고 묻자 로자는 "가장 나쁜 사회민주주의 대중정당이 현실성 없는 외각의 분파보다 낫다."고 대답하면서, 말 그대로 현실성 없는 작은 소규모 분파보다도 개량적이어도 가능성이 있는 대중정당이 낫다는 식으로 입당전술을 옹호함. 반면 평의회 공산주의자들, 즉 평의회 코뮤니스트들/평의회주의자들은 1920년대 이후로 완전히 비타협적 노선을 취해 입당전술을 거부했고 독립적으로 행동했음.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유로는 의회주의에 대한 이견 차이임. 일단 드레온은 '평화적 혁명'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원들을 의회로 진출시켜 정권을 잡아 노동자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의회주의를 사실상 혁명의 위에 두었음.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라는 책을 쓰면서 혁명을 포기하고 의회 개혁 만으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던 베른슈타인을 대차게 비판했음. 하지만 흔히 말하듯이 '소아병'적으로 의회 진출과 의회를 통한 선전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음. 혁명을 우위에 뒀을 뿐이지. 하지만 평의회주의자들은 의회 진출을 완전히 보이콧하면서 노동 현장에서의 직접 행동을 통한 선전을 선호했음. 그렇게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세를 늘릴 수 있다고 믿었고.

셋의 차이점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면 개추 주시고,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dc official App